

강진 3대 물놀이장 오는 21일 개장

V-랜드·초당림·석문공원 내달 17일까지 총 28일간 운영

물놀이 즐기고 청지축제·다산초당 등 피서·관광 '일석이조'

강진군은 3대 물놀이장이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총 28일간 개장에 관광객을 맞이한다고 9일 밝혔다.

해수욕장이 없어 인근 지역으로 피서를 가던 강진 주민들을 위해 4년전부터 개장하고 있는 강진군 3대 물놀이장은 강진군민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매년 수 천명의 피서객들이 찾는 명소가 됐다.

강진읍 보은산에 위치한 V-랜드는 휴게시설과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안전시설을 보강했고 추가 데크 시설을 설치했다.

물놀이장 가는 길에 연꽃단지외 수국길, 코스모스 단지를 조성해 피서객들의 눈을 즐겁게 했다.

칠량면에 위치한 초당림 역시 지난 달 열린 숲속 힐링 체험과 더불어 물놀이장 개장 준비를 마쳤다.

국내 최대 인공 조림인 초당림은 초당 김기운 회장이 50년 가량 조성해 온 강진의 숨겨진 관광명소를 올해로 3년 째 물놀이장을 개방한다.

매년 초당림을 방문하는 피서객의 수가 늘고 있어 총 5개 물놀이장에 개별 배수시설을 설치했다.

도암면 석문공원 물놀이장은 자귀나무, 폐죽나뭀을 식재하는 등 경관을 개선했다.

물놀이장 바로 옆에는 길이 111m 폭 1.5m의 규모의 산악 현수형 출렁다리가 있다. 주변 기암괴석과 석문산, 만덕산으로 이어지는 산맥과

절경을 감상할 수 있어 물놀이와 함께 일석이조의 재미를 누릴 수 있다.

강진군은 물놀이장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생길 수 있는 불상사를 대비해 올해부터 응급구조단을 운영한다.

강진의 3대 물놀이장 수심은 평균 0.5~1.0m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대 이용이 가능하다. 개장기간 동안 쉬는 날 없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제46회 청지축제와 더불어 강진의 3대 물놀이장을 이용하면서 축제와 피서를 동시에 즐기고 가우도 짬뽕, 다산초



강진 초당림 물놀이장

당 등 관광지의 수려함도 만끽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곡성군, 대한민국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서울 aT센터서 유치활동...100여명 방문해 25명 상담

곡성군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서울 서초구 소재 aT센터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가해 수도권 도민에게 적극적인 귀농·귀촌 유치활동을 펼쳤다.

이번 박람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단독으로 주최하고 39세 이하 청년층 방문객 비율이 높아지는 현실에 맞춰 귀농귀촌 희망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제공 및 상담·컨설팅에 중점을 둔 실전형 박람회로 개최되었다.

'귀농귀촌 농업의 미래를 잇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4차 산업혁명, 청년 농창업과 관련된 컨퍼런스와 청년들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팜파티 등 부대행사가 있었으며, 청년 창업관, 스마트 농업관과 같은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관이 마련되어 박람회장을 방문한 도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곡성군은 이번 박람회에서 25명과 심도 있는 상담을 했으며, 100여 명이 곡성군 홍보관에 방문하여 방문 목적을 작성하는 등 도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귀농귀촌한 사무장과 귀농귀촌 협의회 회장의 경험 위주의 내실 있는 상담이 이루어졌고 백세미, 토란만쥬, 토란조청 등 우리지역만의 특화된 농산물 홍보도 이루어졌다.

군 관계자는 "우리군이 곡성 영화를 통해 많이 알려져 있고 도시민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며 "앞으로도 전라선 ktx정차, 서울에서 2시간 10분 거리와 같은 교통 접근성의 편리함과 은어가 서식하는 섬진강과 보성강이 흐르는 아름다운 자연환경 등 우리지역을 알리고 지속적인 도시민 유치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곡성=김광희 기자

담양군 "여름휴가는 무더위 한 방에 날릴 생태관광도시 '담양'으로"



푸르름·청량함 가득한 죽녹원

가미골·한재골·용흥사 계곡

요즘 담양은 온통 짙은 푸르름으로 가득하다. 담양은 죽녹원과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랜드로 이어진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여름이면 담양에 빼놓지 않고 가뵈야 할 곳이 또 있다. 대나무숲과 함께 가미골·한재골·용흥사 계곡으로 자연 그대로 시원함이 가득한 여행을 떠나보자.

먼저, 일상생활과 더불어 지친 심신을 달래주는 데 최적의 장소로 죽녹원을 꼽을 수 있다.

'죽녹원 대숲에 들어서면 머리가 맑아지고 심신이 안정되는 기

분이 든다. 대나무숲은 외부 온도보다 4~7℃정도 낮으며, 산소 발생량이 높고 음이온 발생량이 1,200~1,700개로 일반 숲보다 10배가량 높다.

원시 생태계가 잘 보전된 '가미골생태공원'은 영산강의 시원지인 용소(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가 자리한 곳이다.

가미골은 용소폭포와 시원한 계곡이 산속의 녹음과 어우러지며 각각의 매력으로 관광객을 유혹한다. 용소폭포와 함께 용소를 바라보는 위치에 세워진 정자 '시원정', 계곡을 가로지르는 다리 '출렁다리' 구경도 놓칠 수 없다.

대지면 평장리에 위치한 '한재골'은 푸른 송림 사이에 기암괴석

이 어우러져 마치 북으로 한 폭의 산수화를 그려놓은 듯하다. 약 1.3km에 이르는 계곡은 물이 맑고 깨끗해 물고기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영조탄생의 염원이 담긴 '용흥사계곡'은 담양읍에서 북으로 8km쯤 떨어져 있는 용흥리 마을을 지나 2km쯤 올라가면 보이는 용흥사 부근에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서부터 용흥사 계곡이 펼쳐진다. 약 2km에 이르는 계곡은 물이 맑고 깨끗해 많은 이들이 피서지로 찾는 곳이다.

용흥사는 숙된 최씨가 왕자탄생을 기원해 뒷날 영조를 낳자 절 이름을 용흥사라고 했다고 한다.

담양=박영희 기자

영암군 드림스타트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 운영

영암군 드림스타트는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7월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4주간에 걸쳐 드림스타트 학령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취약계층 아동들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드림스타트는 방학을 맞이해 가정의 양육공백을 해소하고 아동들이 여름

방학을 의미있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으로

이번 특별 프로그램은 종이접기&공예교실, 미술교실, 경제교실, 방송댄스 부모와 함께하는 원예교실, 스피치 리더십 향상교육 등 150여명의 참여 신청 아동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 전문강사를 채용해 진행하

게 된다.

군에서는 금번 실시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아동에게 잠재된 능력을 배양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래 아이들과의 관계 향상에 큰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이 스트레



스를 해소하고, 보람차게 보낼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목포시,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스타트

65명 목포시청·사회복지관·사회적기업서 사회 경험

목포시가 2018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본격 추진한다.

시는 6일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 교육을 갖고 근무 준수 사항, 배치부서 등을 안내했다.

김종식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청년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 4년 임기 동안 2만5백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이 돌아오는 목포를 만들어가겠다. 목포에 머무르면서 원하는 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을 하고, 삶을 보다 활기차게 가꿔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참여 대학생 65명은 7월 9일부터 8월 31일까지 목포시청 각 부서, 사

회복지관, 사회적기업 등 36개 사업장에서 주 5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며 4주만 근무 시 90여만원을 지급받는다.

시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진로선택을 위한 직장 경험을 쌓고 알생으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 아르바이트는 557명이 지원해 8.6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진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는 단순한 사무보조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다양한 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배치했다.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앙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화순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